

## <속기록 초안>

6월 2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계서는 201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09시 30분부터 해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또 국방환경을 평가하며, 전반기 업무평가 및 후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Come & Play 우리 국군 체험전 개최 관련된 건입니다.

국방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우리 국군을 더욱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Come & Play 우리 국군 체험전'을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6.25전쟁 66주년을 맞이해

서 오늘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의 안내로 일반인 신청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호국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유해발굴현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이 분석평가 제도발전과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서 오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2016년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뢰받는 방위사업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분석평가의 순기능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강화와 방위사업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육군 39사단이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5일 지역 연고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경기에서 참전용사와 현재 39사단에서 복무 중인 외손자와의 시구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가 6월 25일 오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 이런 주제로 '6.25전쟁 66주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취재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에 대해서 취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북한이 이제 다음 주에 최고인민회의가 곧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저런 행사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 행사들도 지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수단 발사 이후에 지금 북한군의 특이동향이나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무수단 말고 단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사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발사나 그런 동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방금 기자 분께서 질문했던 그런 류의 특이동향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시다만,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또 필요시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또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들은 항상 상존하고 있고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두 번째 쏘아 올린 북한 탄도탄에 대한 군의 분석이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합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필요한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그게 오래 걸려요?

<답변> (관계자) 부분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탐지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왜 일본보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답변> (관계자) 어떤 부분에서 일본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지금 방위성... 일본 매체들은 방위성을 인용해서 '1,000km 이상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분석이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 기자들이 외신 보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 (관계자) 네, 저희들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대응책 같은 것 논의하셨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질문> 대응책이요.

<답변> (관계자) 대응책도 지금 분명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향후에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참에서는.

<답변> (관계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탄도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군은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사 의도에 대한 분석 나왔나요?

<답변> (관계자) 지난 3월 15일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그러니까 어제 두 번째 발사된 무수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엔진 성능 면에서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 북한이 탄두를 1,400 이상 올려 본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1,400 이상 올렸다는 것은 원래 무수단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데 사실상 1,400~1,500까지 올렸다는 것은 낙하환경이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북한이, 일단 오늘 나온 사진을 분석하기 전에 일단 그 정도 올려서 내려왔다면 분명히 재진입 실험을 했을 것이고 조중통도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재진입 실험을 했다는 증거 같은 것, 정황 같은 것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탄도 재진입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이게 떨어질 때 그냥 떨어졌나요, 아니면 오다가 터졌나요?

<답변> (관계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질문> 같은 질문인데, 종말단계에 낙탄을 했을 때 바다에 탄두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좀 변동이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400km 정도 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낙하단계 때 혹시 속도도 측정이 됐나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는 제한이 됩니다.

<질문> 지금까지 6번 발사를 한 건데 6번 발사 모두 고각 발사를 시

도를 했던 거죠? 이전에 5번도 다 고각 발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죠?

<답변> (관계자)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에서 실패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궤적을 그리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지금 선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전에 5번 실패라는 것의 의미가 정말 '고각 발사'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 그 과정상에 나오는 오류 같은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북한이 고각 발사라는 실험을 하다 보니 생긴 오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답변> (관계자) 일단 아주 초기단계에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궤적이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최소 사거리까지 비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로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150km 날아간 것은 고도는 몇 km 찍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도 분석을 하고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질문> 실장님이 지금 합참을 대표해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아침부터 '고도가 얼마나?'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계속해서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왜 공개를 못합니까?

<답변> (관계자) 저희 레이더의 탐지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희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와 스파이-1 레이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저희가 그런 레이더 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답변> (관계자) 물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왜 공개를 못 하죠?

<답변> (관계자) 북한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2014년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합참이 고도까지 공개한 건 왜 그랬습니까?

<답변> (관계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합참의장님과 정보본부장 입맛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이 됩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때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답변> (관계자) 여러 가지 비교했었던 상황이 있고, 또 한미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항상 얘기하면 비공개 할 때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데요. 예? 이걸 우리 자산으로도 탐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우리 자산으로도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보를 우리 자산으로 탐지했지만 또 공유하는 부분이 \*\*\*

<질문> 아니, 레이더에 속도 나오고, 방향 나오고, 다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저 같은 기자도 아는데 그것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애써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보는 공개해 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네.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주요지휘관회의 관련해서 주신 보도자료 보면, UFG연습과 한미생물연습을 연계해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실시하는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기존에도 일부는 실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보도자료에 주셨던, 이렇게 조금 볼드를 쳐서 주신 의미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름대로 지금 우리 북한의 생물학 공격능력을 감안하고, 이런 제반적인 안보환경들을 고려해서 그런 내용들이 훈련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드로 무수단을 잡을 수가 있나요?

<답변> 그것은 여기서 단순하게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고, 혹시 조기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드 자체의, 그 기능 자체가 '단거리나 준준거리 탄두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나름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합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무수단 발사하고 나서 24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400km 비행했다고 하면 대충, 낙탄점이 대충 나왔을 것 같은데, 낙탄점은 확인이 됐나요?

<답변> (관계자) 동해상 400여 km 지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400여 km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낙탄을 하는데 그게 하나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누어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됐나요?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의외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어제 무수단 발사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진성능 면에서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질문> 그게 성공인가요? 아니면 성공으로 아직 단정하기는...

<답변> (관계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군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가요? 실제 사거리까지 다 실사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실전 비행능력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사거리 이상 또 정상적인 비행궤적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